

세월호 사건을 통해 한국이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언제 선진국이 될 지 한참
들 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진국은 소득 수준만 가지고 될 수 없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과 무엇보다 인간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존엄한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후진적인 참사가 줄을 잇고, 그 사고에 대응하는 걸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환상에서
깼 것 같습니다. 부디 일시적 각성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다 서로 손가락질 해 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가정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는 점수 따기 바빠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관심
밖입니다. 그걸 진지하게 가르치고 싶어도, 학부모들과 교육행정가들 압력에 굴복하고
맙니다. 점수와 등수로 학생 가치가 매겨지는 학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돈과
외모와 지위를 대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마 생명으로 태어난 자체를 귀히
여기고 사랑 받아야 할텐데,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성숙한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왜
생명이 소중한 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랄 지,
가정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다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 1:26-31 함께 읽겠습니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기도)

사람이 왜 귀한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군인 인터뷰 하듯 모범 답안 말고, 아는데로 말시켜 보십시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이대도, 사람이 왜 귀한지 답이 잘 안 나올 겁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뭐라는지 봐야, 사람이 어떤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지가 분명해 집니다. 사람이 왜 소중한니까? 26 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귀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과 발'이란 표현이 나와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인화한 수사법이지 하나님이 우리같이 눈과 손과 발이 있단 뜻이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엄밀히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독창성, 그리고 언어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 형상을 반영합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같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과 인내, 용서와 친절, 그리고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성품을 닮았단 뜻입니다. 사람의 지, 정, 의가 하나님 닮았단 뜻입니다. 사랑 많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품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무너지기 전까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울 땐 맘이 편하고, 불의할 땐 편치 않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피해보는 약자를 보고도, 겁이 나서 피하고 나면 맘이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해도, 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의를 보고 의분을 내면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보고 다치는 한이 있어도, 속 마음은 편하고 뿌듯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도 사랑 먹고 삽니다. 사랑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중국 상하이 고아원 시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감추는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온 고아들, 절반이 죽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시간 맞춰 먹을 것 주고, 잘 입히겠지만, 이상하게 고아들이 병에 잘 걸리고, 일단 병에 걸리면 회복 못하고 잘 죽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이만 그러니까? 다 큰 어른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사랑 베푸는 게 서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능력이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못 나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인 이상, 그 자체로 사람은 존귀합니다. '왜 이리 보잘 것 없나?' 스스로에게나 남에게 그런 말할 자격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볼 때는 아무리 그래 봐도, 하나님 보실 땐 특별한 관계에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보셨을 때, 모든 면에 탁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걸작입니다. 그 걸작을 보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톱 '좋다' 하셨습니다. 자기 닮은 아기를 해산해 품에 안은 엄마처럼...

스스로 무가치하다 여기거나 남들만 못하다 느끼는 분들은, 남들도 그렇게 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엄마에게는 어떤 아기든 소중한 것 이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하단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쩌다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 할 이유는 수 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치는 그 뭘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우리가 인생 살아야 할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버릴 것 없이 소중한 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신 오늘이라는 생명입니다. 형상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LXX는 아이콘으로 번역했습니다. 컴퓨터 용어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감춰졌던 실체가 대신 화면에 나타납니다. 동그란 구글을 클릭하면, 인터넷 검색할 수 있고 이메일 체크도

할 수 있는 다른 창이 뜹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란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니,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 귀한 형상 아이콘을 아담이 깨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전한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래 인간이 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뉴스 사회면에 뜨는 겁니다. 완전히 깨져 박살 난 아이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깨져 박살이 난 아이콘을, 싹 쓸어 버리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래도 귀합니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깨진 형상' 이게 오늘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이콘'이란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이콘인 그분께서 나머지 모든 깨지고 이지러진 아이콘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상하고 깨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이 땅에서부터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con under reconstruction" 회복중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깨졌을 망정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다시 회복시키시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왜 소중합니까? 별 볼일 없는 인생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 형상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해도, 하나님과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없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대신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더욱 고귀하고 존엄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이 분명치 않하면, 다른 무엇, 가진 돈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심지어 연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입니다. 주어가 복수형인데 '이르시되'란 동사는 삼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문법적으로 이상한 문장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라고 복수를 쓰십니다. 문법적으로 격과 성은 맞는데, 수에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창조의 주체가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복수 '우리'를 쓰셨다는 해석입니다. 요1장과 골1:16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 활동하신 것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주석가들 중에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고대 궁정 영어에서도 스스로 "짐이 말하노라"할 때, 복수를 씁니다. 시 104:30에도 한 왕인데 '왕들' 복수를 쓴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두 해석이 모두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유전적으로도 좋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고, 좋은 가정환경에서 교육도 잘 받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럼 선척적 장애가 있거나, 가정 환경이 불우해 교육도 잘 못받고, 그래서 소위 바닥을 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도 똑같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회복 가능성도 없이 고통 당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 가치가 있습니까? 예! 있을 뿐 아니라,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한, 살 가치가 있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 생명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존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그분 성품을 많이 닮았다는 자각은 인간 자존감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나 성취, 외모나 사회적 특권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가 있고 그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비판하거나 깎아 내리는 건, 그런 인생을 내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깎아 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존엄성을 부인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그만큼 가치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토기장이가 토기 만들어 구어낸 다음, “이건 참 걸작이다.” 그러다 맘에 안 드는 건 퍽 깨 버립니다. 토기장이가 “이거 잘 나왔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 하신 건 전혀 다릅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좋다’ 할 때는 우연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건 아닌데, ‘야 이거 잘 나왔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첨부터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좋다’ 그러시다 ‘야 이거 정말 좋다.’ 첨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지, 만들다 보니까 ‘특별히 잘 나왔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좋다’ 말씀하신 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우한 환경에, 돈도 재능도 없이 태어나고, 아예 핸디캡으로 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게 분명하면, 그런 분들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더 특별한 존재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겁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한, 살 가치가 있고 누구 생명 못지 않게 존엄합니다.

창세기 1장을 흔히 천지창조 그러지만, 유심히 보면 사람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천지는 인간 창조를 위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를 다스리도록,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특수 관계에 있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단이 신앙 표준으로 인정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제 1번은,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킨 겁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나?’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도 우리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좋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거워 한다고요? 우리가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즐거워지는 것, 이게 우릴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그 분만 즐겁게 해 드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그 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즐겁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같이 있어도 시간 가는게 아깝고, 떨어져도 금새 다시 보고 싶고, 그래서 싫컷 같이 있다가 방금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하나님 생각만해도 즐거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한 분 계십니까? '경외'란 말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이 있을 때는 두렵고 죄송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각만 해도 기쁜 분 이라야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스스로,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는 게 마땅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해서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 아니하시는 한, 누구도 그럴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귀히 여기시고, 귀히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귀히 여기고 귀히 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능 따랐다간 예쁜 짓 할 때는 이뻐하다, 조금만 기분 나빠지거나 기대에 어긋나면 포악해 집니다. 제가 그랬고, 지금도 주의합니다. 적어도 가정에서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수와 등수로 평가받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가정에서도 같은 가치로 대우받고,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외모와 지위로 대우받던 사회에서 돌아와 가정에서도 같은 가치로 대우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셨으면 의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가정에서 학교로 흘러들고, 학교에서 사회로 퍼져 나갈 때, 한국 사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